

COVID-19 상황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현숙¹, 류정림^{2*}

¹호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군산간호대학교 교수

The Effect of Str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Hyun-Suk Lim¹, Jeong-Lim Ryu^{2*}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²Professor,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J도에 소재한 대학에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 및 SPSS Process Macro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감성지능과 대학차원스트레스($r=-.33, p<.001$), 임상차원스트레스($r=-.31, p<.001$), 회복탄력성($r=.62, p<.001$)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Z=-3.07, p<.001$),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고($Z=-3.07, p<.001$). 따라서 COVID-19 상황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회복탄력성을 증가시켜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COVID-19,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aim of this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79 nursing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based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r=-.33, p<.001$), clinical based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r=-.31, p<.001$), 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r=.62, p<.001$). Resilience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based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showed ful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based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Z=-3.07, p<.001$).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enhancement of resilience may positively affec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nursing students, even while they are str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enhance resilience for stress.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Corresponding Author : Jeong-Lim Ryu(ryujeong312@hanmail.net)

Received October 1, 2021

Revised November 1,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부터 COVID-19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간호교육에서는 임상실습이 대부분 중단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 국내 COVID-19 유행 기간에도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실습을 교내 대체실습 및 온라인 대체실습으로 병행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현재 4차 대유행이 되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대학생들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간호수행과 이를 적용한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2]. 간호대학생은 이론 수업 및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고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업과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한다. 또한 임상실습에 대한 긴장과 불안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일반학과 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4]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타 학과 대학생보다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적당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6], 개인을 성장시킨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 강점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같은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해석이 달라지고[7]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서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을 긍정적으로 사정하도록 돕는 요인인[8] 회복탄력성이 중요시 되고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또는 역경을 극복하고 이를 회복하는 능력을 뜻한다[9]. 또한 스스로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능력[10]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능력이

증가된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나 능력이 하락된다[11]. 비슷한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지만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그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대처한다[12].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지각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적절하게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간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많은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는 감성지능이다[13]. 감성지능은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 가능하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14],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증가 될 수 있다[15]. Ko[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환자, 보호자 및 다른 의료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감성지능을 대학 시기에 개발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16].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생리적, 심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성향인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18]. 반면에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19].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임상상황 속에서 적합한 행동을 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20].

최근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대학생활 및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이러한 감성지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감성지능[22], 임상실습 스트레스[18,23], 학업 스트레스[23]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대학차원스트레스와 감

성지능, 임상차원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대면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임상차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성지능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발생 시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성지능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감성지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J도에 재학 중인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이며, J도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표집방법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비확률 표집 중 임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15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유의한 변수로 검증된 총 9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표본 수 179명으로 본 연구는 이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Yoo 등[21]이 개발한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임상실습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원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차원 스트레스 39 문항과 임상차원 스트레스 20문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한다' 4점으로 최저 0점부터 최고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Yoo 등[21]의 연구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4, 임상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6, 임상차원의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을 위해 Donald Reivich와 Karen Shatte[24]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Kim[8]이 번역하여 한국인에 맞게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 KRQ-53)' 개발한 측정도구를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는 총 2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개발당시 Reivich와 Shatte[24]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6, Kim[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을 위해 Wong과 Law[13]가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Jeong 등[25]이 변안한 도구를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감성지능 4개 문항, 타인감성지능 4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및 감성활용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

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간호대학생 중 연구목적을 설명 후 설문 협조 및 동의를 구한 다음 2021년 5월 0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 방법, 연구참여 조건, 연구의 이익과 위험, 자발적 연구 참여 중단, 연구대상자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소요될 것을 예상되어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개별 동봉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일괄 수거하였다. 미회수 및 불충분한 답변 등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181부를 회수하였고, 한 개라도 응답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나머지 17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감성지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2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이용하였다.

- 매개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주요변수인 감성지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들은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 성별, 성적, 주거형태, 입학동기, 동아리활동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4.2(\pm 4.6)세였으며, 20~25세가 140명(78.2%), 25세 이상이 39명(21.8%)이었다. 여자가 146명(81.6%)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가 136명(76.0%)가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취업이 보장되어'가 70명(39.1%), '적성과 흥미에 적합해서'가 64명(35.8%)를 차지하였다. 동아리 활동여부 '아니오' 101명(56.4%), '가입하였으나 활동안함'이 39명(21.8%)으로 나타났다.

3.2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및 감성지능의 정도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임상차원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학차원 스트레스는 평균 1.78점(범위 0~4점)이었고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평균 1.45점(범위 0~4점)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58점(범위 1~5점), 감성지능의 평균은 4.79점(범위 1~7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및 감성지능과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력 및 감성지능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학차원 스트레스는 나이($t=-2.95$, $p=.004$), 간호학과 입학동기($F=2.88$, $p=.03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나이($t=-3.09$, $p=.003$), 동아리 활동($F=3.29$, $p=.02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력은 성적($F=8.26$, $p<.001$), 동아리 활동($F=3.26$, $p=.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성적에서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회복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감성지능은 성적($F=7.68$, $p=.001$), 간호학 입학동기($F=6.5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성적에서 '상위권'이 '중위권'과 '하위권'보다 감성지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학과 입학동기에서 '가족권유'와 '높은 취업 때문에'가 '적성과 흥미'보다 감성지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of College Based Stress, Clinical Based Stress,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llege Based Stress		Clinical Based Stress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M±SD (range 0-5)	t/F(p) Scheffe	M±SD (range 0-4)	t/F(p) Scheffe	M±SD (range 1-5)	t/F(p) Scheffe	M±SD (range 1-7)	t/F(p) Scheffe
Age(yr)	20-25	140(78.2)	1.70±0.70	-2.95 (.004)	1.37±0.77	-3.09 (.003)	3.58±0.51	0.03 (.973)	4.78±0.88	-0.13 (.894)
	≥26	39(21.8)	2.06±0.62		1.72±0.58		3.58±0.53		4.80±0.83	
	M±SD		24.2±4.57							
Gender	Female	146(81.6)	1.82±0.68	2.06 (.041)	1.54±0.73	3.42 (.001)	3.57±0.51	-0.39 (.698)	4.77±0.87	-0.71 (.482)
	Male	33(18.4)	1.55±0.76		1.05±0.70		3.61±0.56		4.88±0.87	
Grade	High ^a	33(18.4)	1.67±0.78	0.57 (.565)	1.39±0.82	0.18 (.838)	3.89±0.48	8.26 ($<.001$) a)b,c	5.30±0.84	7.68 (.001) a)b,c
	Middle ^b	120(67.0)	1.79±0.66		1.47±0.73		3.53±0.45		4.70±0.84	
	Low ^c	26(14.5)	1.86±0.77		1.41±0.78		3.42±0.69		4.57±0.82	
Residence Types	living with parents	136(76.0)	1.77±0.70	0.36 (.784)	1.45±0.76	0.90 (.409)	3.58±0.53	0.19 (.828)	4.81±0.86	0.77 (.467)
	living with relative	24(13.4)	1.90±0.61		1.58±0.63		3.52±0.35		4.60±0.85	
	Alone	19(10.6)	1.69±0.80		1.28±0.78		3.61±0.58		4.90±0.96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or interest ^a	64(35.8)	1.62±0.69	2.88 (.037)	1.30±0.73	2.10 (.102)	3.67±0.56	1.10 (.352)	4.15±0.82	6.57 ($<.001$) a)b,c
	Recommendation of family ^b	31(17.3)	1.96±0.68		1.64±0.87		3.52±0.51		4.47±0.87	
	High employment ^c	70(39.1)	1.88±0.66		1.53±0.66		3.53±0.50		4.60±0.84	
	High school record ^d	14(7.8)	1.56±0.79		1.26±0.87		3.51±0.41		4.76±0.76	
Culb activity	No	101(56.4)	1.79±0.64	1.23 (.299)	1.53±0.71	3.29 (.022)	3.51±0.54	3.26 (.023)	4.76±0.87	2.71 (.072)
	Yes, no activity	39(21.8)	1.83±0.66		1.56±0.72		3.53±0.44		4.57±0.80	
	Yes, moderate	28(15.6)	1.57±0.85		1.07±0.78		3.78±0.47		5.10±0.92	
	Yes, activity	11(6.1)	2.00±0.92		1.30±0.91		3.85±0.52		4.99±0.78	

Table 2. Degree of College Based Stress, Clinical Based Stress,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N=179)

Variables	M±SD	Range	Cronbach's α
College Based Stress	1.78±0.70	0-4	.961
Clinical Based Stress	1.45±0.75	0-4	.955
Resilience	3.58±0.52	1-5	.937
Emotional Intelligence	4.79±0.87	1-7	.923

Table 3. Correlation among College Based Stress, Clinical Based Stress, Resilience, Emotional Intelligence (N=179)

Variables	College Based Stress	Clinical Based Stress	Resilience
	r		
College Based Stress	1		
Clinical Based Stress	.73**	1	
Resilience	-.26**	-.31**	1
Emotional Intelligence	-.33**	-.31**	.62**

** $p<.001$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및 감성지능과의 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대학차원 스트레스($r=-.33, p<.001$), 임상차원 스트레스($r=-.31,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력($r=.62,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력은 대학차원 스트레스($r=-.26, p<.001$), 임상차원 스트레스($r=-.31,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대학차원 스트레스($r=.7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대학차원 스트레스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위계적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ston 지수는 1.72~2.1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고, 독립변수들 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37~3.719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흩어져 있어 등분산성이 확인되었으며, 왜도(-0.340~0.209)와 첨도(-0.976~1.498)가 모두 기준 값인 2 미만이어서 오차의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로 감성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적 및 간호학과 입학동기를 더미 처리하여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함께 투입하여 통제 처리한 결과 독립변수인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24, p=.001$). 2단계에서 성적, 간호학과 입학동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27, p<.001$).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수인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차원 스트레스($\beta=-0.15, p=.012$)와 회복탄력성($\beta=0.52, p<.001$)이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0.27에서 -0.15로 감소하여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3.6%였다.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Fig. 1과 같다.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Z=-3.07, p<.001$).

3.5.2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로 감성지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적 및 간호학과 입학동기를 더미 처리하여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함께 투입하여 통제 처리한 결과 독립변수인 임상차원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29, p<.001$). 2단계에서 성적, 간호학과 입학동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0.26, p<.001$).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종속변수인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고($\beta=-0.11, p=.071$),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beta=0.52, p<.001$). 3단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회복탄력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2.6%였다.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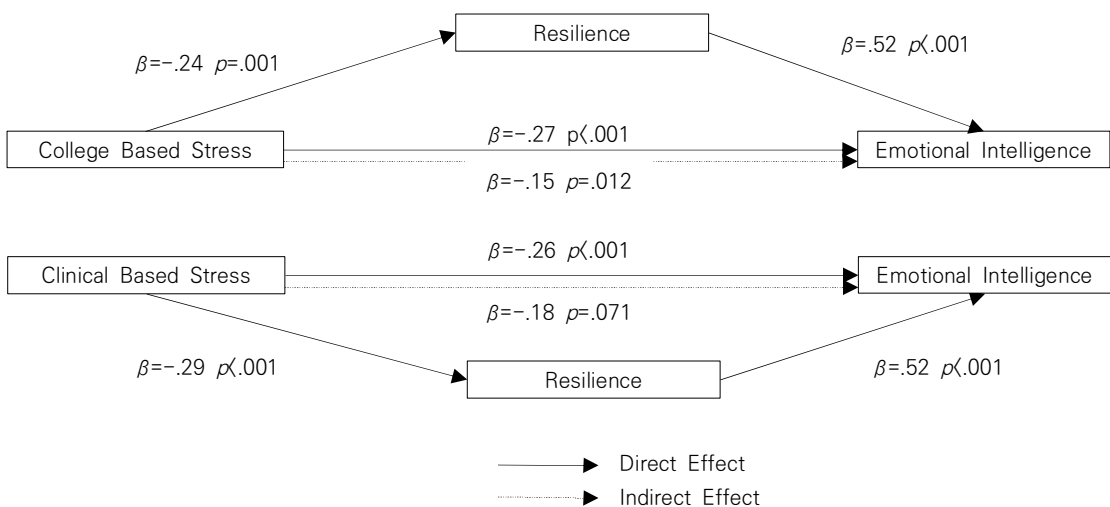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Table 4. Mediating Effect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Based Stress and Clinical Based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N=179)

Equations	B	β	t	p	Adj.R ²	F	p
A:							
Step 1.					.12	4.88	<.001
College-BS → Resilience	-.17	-.24	-3.25	.001			
Glade high(ref: low)	.42	.32	3.23	.001			
Step 2.					.20	8.40	<.001
College-BS → EI	-.34	-.27	-3.97	<.001			
Glade high(ref: low)	.56	.25	2.72	.007			
Step 3.					.44	20.67	<.001
College-BS → EI	-.19	-.15	-2.34	.012			
Resilience → EI	.88	.52	8.55	<.001			
Sobel test(Z=-3.07, p<.001)							
B:							
Step 1.					.15	6.12	<.001
Clinical-BS → Resilience	-.20	-.29	-4.16	<.001			
Glade high(ref: low)	.45	.34	3.52	.001			
Step 2.					.22	8.22	<.001
Clinical-BS → EI	-.31	-.26	-3.85	<.001			
Glade high(ref: low)	.62	.28	2.98	.003			
Step 3.					.45	19.87	<.001
Clinical-BS → EI	-.13	-.11	-1.82	.071			
Resilience → EI	.88	.52	8.37	<.001			
Sobel test (Z=-3.07, p<.001)							

College-BS=College-Based Stress; Clinical-BS=Clinical Based Stress; EI=Emotional Intelligence; Control variabnle=glade, motivation; Adj.R²=Adjusted R-squared

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on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N=179)

Mediation Path				Indirect effect	Boot. SE	95% CI		
	→	→				Boot.LLCI	Boot.ULCI	
College Based Stress	→	Resilience	→	Emotional Intelligence	-0.15	0.07	-0.32	-0.03
Clinical Based Stress	→	Resilience	→	Emotional Intelligence	-0.18	0.07	-0.33	-0.07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Z=-3.07, p<.001). 대상자들의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Bootstrapping 결과 Table 5와 같다.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간접효과는 대학차원 스트레스 -0.15, 임상차원 스트레스 -0.18이었으며, 신뢰구간 95%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유행기간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임상차원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감성지능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7-29]. 또한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선행연구[23,28,30]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감성지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8]. 이는 COVID-19로 인한 위협사회에서 간호대학생은 대학차원과 임상차원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우 감성지능이 낮아진다. 또한 개인을 보호하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인 감성지능을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OVID-19로 인한 위협사회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회복탄력성이 향상되고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적고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은 감성지능이 높았다. 이들 변수가 감성지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에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감성지능의 영향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31]. 따라서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차원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COVID-19라는 위험사회에서 대학차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낮추면 감성지능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다음은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회복탄력성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임상차원 스트레스가 감성지능에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회복탄력성이 감성지능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어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감성지능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COVID-19로 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기에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임상실습을 잘 수행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임상차원 스트레스는 학생이 경험하는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혼란,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효과적인 임상실습 수행을 방해하게 된다[32]. 더구나 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환자의 고통이나 죽음,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간호지식과 임상술기의 부족, 실습평가, 간호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임상차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33]. 선행연구에서 임상차원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긍정적 성향인 감성지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28], COVID-19로 인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상차원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회복탄력성을 통해서 감성지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개인의 내·외적 문제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34]. 이에 임상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임상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COVID-19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낸다[35]. 무엇보다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 및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감성을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유연성 또는 융통성을 뜻하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36]. COVID-19로 인한 위험사회에서 대학차원 및 임상차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회복탄력성이 발현되면 한계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게 되어 감성지능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감성지능 관련 요인이나 감성지능과의 관계 또는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의 효과성 검정을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임상차원 스트레스의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

나,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감성지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대학차원 스트레스, 임상차원 스트레스와 통합분석 하였기에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살펴본 본 연구결과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1] D. Sheroun, D. D. Wankhar, A. Devrani, P. V. Lissamma, S. Gita & K. Chatterjee. (2020). A study to assess the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B.Sc. nursing students of selected colleges in Pune during COVID-19 pandemic lockdow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Healthcare Research*, 5(2), 280-288. DOI : 10.52403/ijshr
- [2] S. J. Shin & E. H. Hwang. (2018).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3), 156-163. DOI : 10.17496/kmer.2018.20.3.156
- [3] S. A. Kim, H. J. Lee, S. H. Lee & E. H. Hong. (2020). Types of stres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2), 237-247. DOI : 10.21184/jkeia.2020.2.14.2.237
- [4] K. S. Choi. (2017).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Coping Methods of Emergency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Society*, 100(2), 44-52.
- [5] K. McGonigal. (2015). *The upside of stress: why stress is good for you, and how to get good at it*. Paju: Book 21.
- [6] J. M. Ko. (2017).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2), 120-127. DOI : 10.17547/kjsr.2017.25.2.120
- [7] S. Y. Choi, M. R. Yoo & M. J. Lee.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dets' Life Adjustment, Stress,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in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32(1), 1-13.
- [8] W. Y. Shin, M. G. Kim & J. H. Kim. (2009). Developing Measure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9]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 : 10.1037//0022-3514.70.2.349
- [10] B. M. Gillespie, W. Chaboyer, M. Wallis & P. Grimbeek. (2007).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ournal of Advanc Nurse*, 59(4), 427-438.
- [11] S. K. Hong. (2009). Concept development of resilience-focusing on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109-119.
- [12]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 [13]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14] H. J. Park. (2010). *The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program on emo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ead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15] M. S. Ko. (2015).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80-291. DOI : 10.5392/JKCA.2015.15.10.280
- [16]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 [17] J. D. Mayer, D. R. Caruso & P. Salovey. (2000).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87-298.
DOI : 10.1016/S0160-2896(99)00016-1
- [18] P. Salovey, B. T. Bedell, J. B. Detweiler & J. D. Mayer. (1999). *The handover: Coping intelligently: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ping process*. In: Snyder CR, editor. *Scholarships in the discipline*. Oxford University Press: 141-164, New York.
- [19] J. D. Mayer, D. R. Caruso & P. Salovey. (2000).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27(4), 267-298.
DOI : 10.1016/S0160-2896(99)00016-1
- [20]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459.
DOI : 10.5762/KAIS.2013.14.6.2749
- [21] J. S. Yoo, S. J. Chang, E. K. Choi & J. W. Park. (2008).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8(3), 410-419.
- [22] N. An & T. J. Jang. (2020). The effects of nurses' authentic leadership and nursing colleg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0), 439-453.
DOI : 10.22251/jlcci.2020.20.10.439
- [23] S. H. Hong, J. S. Kim & D. B. Ju. (2020).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443-450.
DOI : 10.15207/JKCS.2020.11.9.443
- [24] K. Reivich & A. Shatte'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New York: Harmony; 2003.
- [25] H. W. Jeong. (2007).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 [26]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27] G. Y. Joo & Y. S. Choi. (2015).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00-7309.
DOI : 10.5762/KAIS.2015.16.11.7300
- [28] E. J. Shin & Y. S. Park. (2013).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1), 5636-5645.
DOI : 10.5762/KAIS.2013.14.11.5636
- [29] E. I. Mervat. E. E. Shinmaa, M. E. Soha & S. D. Laila. (2020).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8(4), 45-56.
DOI : 10.33495/jerr_v8i4.20.135
- [30] N. Seyedfatemi, F. Pourafzal, M. Inanloo & G. Haghani. (2015). Perceived-stress and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European Psychiatry*, 30(S1), 1005.
DOI : 10.1016/S0924-9338(15)30787-2
- [31] H. S. Byeon & M. R. Kang. (202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tress on Resilience in Risk Society: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4(4), 57-76.
DOI : 10.29398/KJSQ.2020.4.4.57
- [32]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33] P. Burnard, D. Edwards, K. Bennett, V. Tothova, D. Baldacchino, & P. Bara. et al. (2008). A comparative, longitudinal study of stress in student nurses in five countries: Albania, Brunei, the Czech Republic, Malta and Wales. *Nurse Education Today*, 28(2), 134-145.
- [34] J. Block & A. M. Kremen.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35] C. Hamill. (1995). The phenomenon of stress as

perceived project 2000 student nurses: A cas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3), 528-536.
DOI : 10.1111/j.1365-2648.1995.tb02737.x.

- [36] N. Garmezy.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the risk. *Psychiatry*, 56(1), 127-136.
DOI : 10.1080/00332747.1993.11024627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2월~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 여성
- E-Mail : process@howon.ac.kr

류 정 림(Jeong-Lim Ryu) [정회원]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8년 2월~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 E-Mail : ryujeong312@hanmail.net